사료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해야

김 정 호
(사)한국사료협회 회장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갖고 출발한 을유년 새해도 벌써 2/4분기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과 사료업계 종사자 여러분의손길과발걸음도무척바빠지리라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사료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그리고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과 같은 배를 탄지도 2 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지면을통해다시한번여러분께인사를드립니다.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80 ~ 90년대의 양적성장기를 거쳐 개방화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천년대에 들어서면서 질적인발전단계로접어들고 있다고하겠습니다.

국내 가축사육 규모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 내지는 감소한다던가, 사료 생산증가율이크게 둔화되고있다던가, 소비자의 수요패턴이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변하고, 가격보다는 위생·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나타내고있다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축산업과 사료산업 공히 구조적 변화기를 맞고 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시대의 최대 화두가‘ 변화와 혁신 ’입니다.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이야말로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산업이든 주변의 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적응하지 못하고, 내부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낙오되고 도태된다는 사실은 산업발전사에서여실히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의 연간 생산액이 10조원에 달하고, 생산액 기준으로 국내 10대 농산물중 5개가 축산물이라는 자부심만으로는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부단히 자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만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산업과 사료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야말로 동전의 앞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이란 토대가 없이는사료산업의 발전은 기약 할수없으며, 아울러 사료산업의 발전이야말로축산업발전의요체가된다고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점에서축산업발전을위해 우리가 앞으로추구해야 할 사료산업의 내실화 방향을 몇 가지 제기하고싶습니다.

먼저 사료산업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보다도 양질의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원료곡물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원료를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매우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세계 곡물시장, 그리고 급등하는 해상운임 등을 감안할 때 사료원료를 여하히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사료업계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불과 수십일 분량의 사료원료만을 재고로 갖고 있어 사육가축을 굶기는 사태가 발생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곡물시장과 해운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동향파악과 함께, 수입시장 다변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폭넓게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곡물시장에서 연간 1,000만톤 이상의 사료곡물을 수입하는 그야말로 큰손에 해당됩니다. 최대 바이어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에 걸 맞는 bargaining power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매시스템을 크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간 1,350여 만톤의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톤당 1$만 싸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350만$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수입국으로서의 bargaining power를 제고시키는 것이야말로 사료업계가 공통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생적으로 안전한 사료를 생산·공급하는 일입니다. 소득향상과 웰빙의 물결을타고소비자들이 크게 요구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바로 사료안전성문제와도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축산물 안전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사료에 들어가는 항생제를 53종에서 25종으로 대폭 축소하고, 사료에 대한 HACCP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사료에 대한 HACCP제도는 사료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up-grade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사료산업이 안고 있는 현실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에 있는 만큼 우리 업계에서도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함으로서 이를 사료산업 발전의 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협회도 지난 4월초에 사료 HACCP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업계가 새로운 HACCP제도에 적응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축산업의발전을위해사료업계가 담당해야할 또 다른 주요과제는선진화된사육 관리기술과 경영기법의제공입니다.

사료산업이 단순히 사료판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축종별·사육관계별로 우리의 축산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사양관리와 사육경영 program을 개발하여 양질의사료와함께축산현장에 보급하는 일이야말로개방화 진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국내 축산물의 브랜드사업, 계열화 사업 등에 있어서도 우리 사료업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의 사업적 관심을 축산물 마켓팅 분야까지확대시켜나갈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축산업의발전을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료산업 자체의 체질강화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사료산업의 발전적 진화를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져야하겠으며, 한정된 국내수요의 한계를 뛰어 넘어 사료산업의해외진출또한국내사료산업이 튼튼해질 수있는 기반이될 것으로믿습니다.

사료산업이 내실화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료원료에 대한 저율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기간의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상향조정, 사료원료구매자금의금리인하, 하역인프라구축 등정부의정책적인지원조치가 강화되어야하겠습니다. 축산농가입장에서도 사료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궁극적으로는 사료의 생산원가절감을통해 우리 축산농가의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합니다.

저희 협회도 우리 사료산업이보다 선진화된구조로 탈바꿈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축산업 발전이 바로 사료산업 발전이라는인식하에축산업전반에걸친당면과제해결과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는과정에서도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대안을찾는노력을 가일층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협회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